

# 虞搏의 醫學正傳中 醫學或問에 關한 研究

김형주<sup>1</sup> \*

## A Study of the Orthodox Transmission of Medicine(醫學或問) in Yi Xue Zheng Chuan(醫學正傳) of Yu Tuan(虞搏)

Kim Hying-Joo<sup>1</sup> \*

<sup>1</sup>Dept. of Korean Medicine, Daejeon University

**Objective** : The Orthodox Transmission of Medicine(醫學或問) in Yi Xue Zheng Chuan(醫學正傳) are inventive and important in medical opinions of Yu Tuan(虞搏).

**Methods** : The 51 provisions of Orthodox Transmission of Medicine(醫學或問) are researched with overall and some important theories about San jiao (三焦) and Ming men(命門) are examined in detail that Yu Tuan(虞搏) insist.

**Result & Conclusion** : Yu Tuan(虞搏) insist that San jiao- celom theory(腔子三焦說), Both kidney-Ming men theory (兩腎皆爲命門說) and inventive Harmful hyperactivityand respondinginhibition theory (亢害承制論) in The Orthodox Transmission of Medicine(醫學或問).

**Key Words** : Yu Tuan(虞搏), The Orthodox Transmission of Medicine(醫學或問), Yi Xue Zheng Chuan(醫學正傳), San jiao(三焦), Ming men(命門), Harmful hyperactivityand respondinginhibition theory (亢害承制論)

### I. 緒 論

虞搏의 字는 天民이요, 浙江 義烏사람으로 花溪에 거주하였으므로 스스로를 花溪恒德老人으로 불렀으며, 明 正統 3년(서기 1438년)에 태어나 明 正德 12년(서기 1517년)까지 82세를 살았다.

虞搏의 집안은 대대로 의업에 종사하였는데 특히 증숙조부인 虞誠齋는 주단계와 동시대에 같은 고을에 살았기 때문에 주단계의 학술사상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 虞搏은 어려서부터 총명하고 학문

에 열중하여 많은 책을 보고 시와 문장에 능했으나 모친이 병을 얻은 이후에 버슬길에 나아가는 것을 포기하고 가업을 이어 의학에 전념하였다. 이런 이유로 주단계의 사상은 가업을 물려 받은 虞搏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虞搏은 明나라가 외부적으로 과학과 의학의 교류가 빈번한 시대에 활동했으며 특히 당시의 의학적 조류가 李杲, 朱丹溪의 학술 사상을 중시하였기 때문에 이들의 사상은 虞搏의 학술사상 형성 과정에 깊은 영향을 끼쳤다. 그는 丹溪를 숭상하여 丹溪의 학설을 발전시킴과 동시에 수십년 자신만의 독특한 학술 견해를 제출하였는데, 三焦에 대한 새로운 견해, 命門과 腎에 대한 연구 등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 교신저자 : 김형주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원전학교실  
E-mail : sukang2013@naver.com Tel : 042-280-2603  
투고일 : 2014년07월01일 수정일 : 2014년07월30일  
게재일 : 2014년07월30일

虞搏은 《醫學正傳》序 중에서 말하기를 “愚承祖父之家學，私淑丹溪之遺風 (나는 조부의 家學을 물려받았고 丹溪가 남긴 학풍을 사숙했다)”<sup>1)</sup>고 하였을만큼 그는 丹溪의 心法에 대한 이해가 깊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傷寒에 관해서는 仲景을, 內傷은 東垣을, 小兒에 대해서는 錢仲陽을 많이 따랐지만, 《醫學正傳》중에서 기타의 병증에 대해서는 모두 “丹溪要語” “丹溪方法” “丹溪活套”를 두어 丹溪를 깊이 추종하고 있다. “丹溪要語”는 丹溪가 각 병증의 병리에 대하여 闡述한 내용이고, “丹溪方法”은 丹溪의 치료방법과 방제에 대한 내용이며, “丹溪活套”는 丹溪의 방제 가감에 대한 내용을 서술하고 있다.

虞搏은 이처럼 본이 영향을 받은 丹溪의 의술을 더욱 발전시키며 40년의 임상을 거친 후 78세가 되는 해에 《醫學正傳》을 저술하였는데, 이 《醫學正傳》은 특히 《東醫寶鑑》에서 중요하게 인용하고 있는 서적 중 하나이다. 虞搏은 《醫學正傳》內的 「醫學或問」에서 醫學的 論爭에 대하여 문답 형식으로써 51條에 걸쳐서 그만의 독창적인 여러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 이 「醫學或問」 51條의 전체적인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고, 그 중에서 후세 의가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친 三焦, 命門, 尙害承制 및 기타의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 II. 《醫學正傳》 「醫學或問」 中の 虞搏의 의학 이론과 그의 의학에 대한 관점

### 1) 《醫學正傳》 「醫學或問」 51條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

먼저 《醫學正傳》 「醫學或問」 51條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第 1條 : 《黃帝內經》으로부터 虞搏 시대 이전까지 의학계에 많은 영향을 끼쳤던 醫家들에 대해 설명하였다.

第 2條 : 《禮記》의 ‘醫不三世, 不服其藥’를 인용하여, 虞搏 자신의 醫學이 丹溪로부터 영향을 받은 증숙조부 虞誠齋에 근원하고 있음을 밝혔다.

第 3條 : 尙害承制論에 대하여 闡發하였는데, 이에 대한 내용은 아래에서 상술하기로 한다.

第 4條 : 陰陽氣血의 虛實에 대하여 治法, 治方, 本草를 예를 들어 설명하였다.

第 5條 : 形、聲、色、脈四診 중에서 脈診을 제외한 나머지 3가지의 診法을 설명하였다.

第 6條 : 寒邪가 足太陽膀胱經으로 먼저 들어오는 이유를 인체가 天地의 이치에 부합하여 同氣相求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第 7條 : 腔子三焦說을 주장하였는데, 이에 대한 내용은 아래에서 상술하기로 한다.

第 8條 : 東垣이 升陽益胃하는 처방에 升麻와 柴胡 등을 佐使藥으로 사용한 이유에 대해 밝혔다.

第 9條 : 內傷에 東垣의 補中益氣湯 등을 사용시, 胸中 滿悶하게 되는 이유와 이 때 사용하는 약물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第 10條 : 醫和가 陰陽風雨晦明이라고 한 것이 사실 《內經》의 風寒暑濕燥火, 즉 六淫之邪와 같은 의미임을 주장하였다.

第 11條 : 飲食이 들어와 大小便으로 되는 과정을 설명하였다. 특히, 「陰陽應象大論」에서 ‘清陽爲天, 濁陰爲地. 地氣上爲雲, 天氣下爲雨’를 인용하여 天氣가 비처럼 下降하는 것을 小便에 비유하였다. 따라서, 젊은 사람은 春夏를 닮아 상승하는 기운이 많고 하강하는 것이 적기 때문에 小便의 양이 적고, 노인은 秋冬을 닮아 상승하는 기운이 적고 하강하는 기운이 많기 때문에 小便의 양이 많다고 설명하였다.

第 12條 : 사람의 壽夭가 肥白, 瘦黑에 따라 다르고, 거주하는 곳에 따라 달라짐을 설명하였다.

第 13條 : 泄痢로 脫肛과 後重 증세가 있을 때, 升氣하는 升麻, 柴胡와 氣를 하강시키는 木香, 檳榔을 같이 쓰는 원리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즉, 이렇게 서로 반대로 작용하는 약물들을 함께 사용할 경우 일견 그 효능이 뒤섞여 작용을 하지 못할 것처럼 생각되지만, 虞搏은 仲景이 大

1) 虞搏 醫學正傳.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1. p.3.

柴胡湯에서 柴胡로 邪氣를 밖으로 흘리고, 大黃으로 내부의 實한 것을 내려 表裏를 함께 치료했다는 점에 착안하였다. 따라서, 大柴胡湯과 같은 이치로 升麻, 柴胡는 清氣를 끌어올려 脫肛을 치료하고 木香, 檳榔은 邪氣를 아래로 쫓아서 後重을 치료한다고 보았다.

第 14條 : 兩腎皆爲命門說을 주장하였는데, 이에 대한 내용은 아래에서 상술하기로 한다.

第 15條 : 《內經》 「陰陽應象大論」의 '壯火之氣衰, 少火之氣壯; 壯火食氣, 氣食少火; 壯火散氣, 少火生氣.'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第 16條 : 《難經》 第 1難에서 사용하는 '寸口'라는 용어가 '寸'부위만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寸, 關, 尺 전체를 지칭하는 의미라고 주장하였다.

第 17條 : 《難經》 第 8難에서 설명하는 腎間動氣가 배꼽 아래의 氣海丹田임을 關發하고, 배꼽과 직접 마주보는 등 쪽의 穴이 命門이고 그 바로 옆이 腎膵임을 근거로, 氣海丹田이 腎의 뿌리가 되는 곳이라고 주장하였다.

第 18條 : 《內經》에서 陽明病이 심한 경우의 증상에 대해 설명하였다.

第 19條 : 《難經》 53難에서 이른바 '經言七傳者死, 間臟者生'이라고 한 것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第 20條 : 각종 물의 종류와 성질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東醫寶鑑 湯液篇 水部에서 이條를 중요하게 인용하고 있다.

第 21條 : 腫脹의 치법에 대해 丹溪와 東垣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하였다.

第 22條 : 배고픔이 심할 때 음식을 먹으면 소화가 잘 되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第 23條 : 땀과 침의 補瀉에 관하여 주장하였는데, 虞搏은 虛한 사람에게 땀을 뜨면 元陽을 돕고 實한 사람에게 땀을 뜨면 邪氣가 火氣를 따라 發散하므로, 땀의 경우 補와 瀉 모두 작용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침의 경우는 補하는 작용은 없고, 瀉하는 작용만 있다고 주장하였다.

第 24條 : 十全大補湯의 각 약물들의 효능과 그 부작용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第 25條 : 脈의 緩急이 사람에 따라 다른 이유를 설명하였다.

第 26條 : 脈診시 寸, 關, 尺 부위에서 脈動이 느껴지지 않을 경우 陽溪穴과 合谷穴 부위를 누르면 脈動이 느껴지는 이유를 설명하였다. 虞搏은 肺와 大腸은 서로 表裡가 되고, 關, 尺 부위의 列缺穴이 絡穴이므로, 脈이 絡脈을 따라 手陽明經으로 나가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第 27條 : 產後 치료 원칙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第 28條 : 妊婦임에도 月經이 있거나 下血하는 경우와 태어날 달을 넘겨 출산하는 경우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第 29條 : 妊婦가 성생활을 삼가지 않아 氣血이 虧損되어 難産하게 되는 이치를 설명하였다.

第 30條 : 中風으로 半身不遂가 되어 살아가면서 죽지 않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였다. 虞搏은 《內經》 「五常政大論」의 '根於中者命曰神機, 神去則機息。 根於外者命曰氣立, 氣止則化絕'를 인용하며, 神機는 動物을 의미한다고 하면서 神機가 죽지 않고 氣化작용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비록 半身不遂가 되었지만 계속 살게 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第 31條 : 雀目에 대한 병리를 설명하였다.

第 32條 : 소아의 氣喘에 사람들이 土神을 범했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 비판하였는데, 이는 아래에서 상술하기로 한다.

第 33條 : 鬼胎에 대하여 미신적인 부분이 있음을 비판하였는데, 이 또한 아래에서 상술하기로 한다.

第 34條 : 滑伯仁의 醫案에 등장하는 鬼胎에 대한 미신적인 내용을 비판하였다.

第 35條 : 환자의 生年月日時를 추산하여 병을 치료하는 것을 비판하였다.

第 36條 : 龐安常의 《傷寒總病論》에 나오는 瘟疫에 대하여 虞搏은 그러한 증상을 이제까지 본 적이 없으니 후대의 논의를 위해 기록을 남겨둔다고 하였다.

第 37條 : 龐安常 《傷寒總病論》에 기재되어 있는 '聖散子方'의 무분별한 사용에 대해 비판하였다. 龐安常은 聖散子方이 瘟疫에 증상을 묻지

않고 누구나 복용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병이 없는 경우라도 이를 복용하면 예방할 수 있다고 하였다. 虞搏은 聖散子方을 구성하고 있는 약물의 효능을 하나하나 언급하면서 이러한 龐安常의 주장을 비판하고 濫用됨을 우려하였다.

第 38條：發痧라는 병에 대하여 상술하였다.

第 39條：痞, 癰, 積, 聚, 瘕에 대하여 비교 설명하였다.

第 40條：가위 놀리는 것이 귀신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병리적으로 설명하였다.

第 41條：禁咒科가 《素問》 祝由科에서 유래함을 설명하고, 移精變氣로 치료할 수 있는 질병과 그 한계를 분명히 하여 사된 술법을 경계하도록 하였다.

第 42條：丹溪의 外感挾內傷과 內傷挾外邪에 대한 진단법과 치법에 대하여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第 43條：사람의 壽夭가 天命에 의해 결정되는데, 醫術이 어떻게 그것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第 44條：丹溪가 통증에 補氣藥을 쓰면, 氣가 왕성해지고 통하지 않게 되어 통증이 더욱 심해진다고 한 부분에 대하여, 虞搏은 통증에도 虛實 이 있음을 예시하면서 虛한 경우에는 補氣藥을 당연히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第 45條：人迎、氣口、神門 三脈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第 46條：相畏 相惡 相反되는 약들을 한 처방에 같이 사용하는 이치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第 47條：當歸 頭, 身, 尾의 효능이 다르게 작용하는 이치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第 48條：黃柏、地黃 類 약재들이 鐵器를 금기시키는 이유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第 49條：竹茹、竹葉 및 竹瀝에 사용하는 淡竹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였다.

第 50條：특정 지역에서 병이 없어도 檳榔을 씹는 풍습에 대하여 비판하였다.

第 51條：丹溪가 婦人의 産後에 酸寒한 성질의 芍藥을 사용하지 말라고 한 것에 대하여 丹溪의 본뜻이 그것이라고 주장하며 여러번 酒炒하여 사용하는 것은 可하다고 설명하였다.

이상의 거의 모든 내용들은 단순히 과거의 내용을 답습하여 기술한 것들이 아니고 虞搏 자신이 心得하고 깨달은 내용들을 기술한 것이므로 참고할 가치가 크다고 사료되며, 이들 중에서 후세에 큰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되는 三焦, 命門, 尙害承制論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 2) 腔子三焦說

역대로 三焦의 생리 기능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는 거의 異論이 없었으나 《難經》에서 三焦를 “有名無形”이라고 말한 이후 有形, 無形에 대해서 많은 論爭을 야기하였다.

즉, 《難經·二十五難》에서 “心主與三焦爲表裏, 俱有名而無形. (심포와 삼초는 표리를 이루는데, 모두 이름은 있지만 형태가 없다.)” 고 하였고 《難經·三十八難》에서도 “有名而無形”이라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內經》에서는 三焦의 有形說을 뒷받침하는 근거들이 확고히 존재한다.

《靈樞》「經脈」을 보면 三焦經의 流走를 기술하면서 散絡心包, 循屬三焦한다고 하였고 表裏가 되는 心包經의 流走에서는 出屬心包絡하고 歷絡三焦한다고 하였다. 十二經脈은 모두 臟腑에 根源을 두고 經脈이 뻗어 나오는데 三焦가 無形이라면 三焦經脈이 나올 수가 없을 것이며 더 나아가 三焦經이 循屬三焦하고 心包絡이 歷絡三焦한다고 말할 수가 없을 것이다.

또 《靈樞》「經脈」에서 “勇士者, 目深以固, 長衡直揚, 三焦理橫.....怯士者, 目大而不減, 陰陽相失, 其焦理縱”이라고 하여 三焦의 腠理가 橫하거나 縱하다고 함으로써 三焦가 有形임을 더욱 확실하게 뒷받침하고 있다.

이처럼 《難經》과 《內經》의 三焦에 대한 내용에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醫家들이 《難經》의 三焦의 無形說을 따랐는데, 이것은 다음과 같은 장경약의 말에 비추어 보아도 비판받을 여지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 “難經이란 책은 內經에서 논란이 되는 부분을 發明한 것이기 때문에 難經이라 한 것이니 실상 難經은 內經에

서 나온 것이다. 內經에서는 그 명칭과 형상을 상세히 설명했고, 難經에서는 無形이라고 하였는데, 難經의 無形說을 따를 것인가 內經의 有形說을 따를 것인가”<sup>2)</sup>

하지만, 宋代에 이르러 三焦有形說이 제기되기 시작하였고 明代에 와서는 여러 醫家들에 의해 三焦有形說 활발하게 논의되었는데 虞搏은 腔子三焦說을 제창하여 그 논의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

즉, 虞搏은 《醫學正傳》「醫學或問」第 7條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三焦는 體腔을 지칭하는 것으로 腸胃의 모든 기능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횡경막의 상부를 上焦라 하고, 횡경막 아래에서 배꼽 위까지를 中焦라 하고, 배꼽 아래를 下焦라 하며 통틀어서 三焦라 부른 것인데 받는 바가 없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 형체는 脂膜이고 體腔내에 있으며 六臟五腑를 바깥 쪽에서 둘러싸고 있는 것이다.

(三焦者, 指腔子而言, 包函乎腸胃之總司也。胸中肱膜之上, 曰上焦; 肱膜之下, 臍之上, 曰中焦; 臍之下, 曰下焦, 總名曰三焦, 其可謂之無攸受乎。其體有脂膜在腔子之內, 包羅乎六臟五腑之外也.)<sup>3)</sup>

《素問》「六節藏象論」에서는 “脾胃大腸小腸三焦膀胱者, 倉廩之本, 營之居也, 名曰器”라 하였는데, 器는 물건을 담은 그릇으로써 유형적인 것이다. 여기서 삼초를 기타 有腔장기와 함께 언급하면서 이들을 모두 器라고 한 것으로 보아 三焦는 有形의 구조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속이 비어 무엇인가를 담거나 싸고 있는 장기임을 추측할 수가 있다.<sup>4)</sup> 虞搏이 三焦는 腔내부에 六臟五腑를 포함하고 있는 有腔한 장부라고 주장한 것은 이처럼 《內經》의 취지와도 부합하는 것이다.

그는 또 《醫學正傳》「醫學或問」第 7條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인체에서 相火는 腔子 내부와 횡경막의 上下 사이를 游行하는데 이 곳을 三焦라고 命名하니 또한 五臟六腑라는 말과도 부합하는 것이다. 丹溪가 “天은 이 相火가 아니면 만물을 생할 수 없고, 사람은 이 相火가 아니면 살 수 없다” 고 하였다. 《內經》에서 心胞絡을 臟으로 여기고 三焦와 배합하여 六臟六腑, 총 12經이라고 하였다.

(人身之相火, 亦游行於腔子之內, 上下肱膜之間, 命名三焦, 亦合於五臟六腑。丹溪曰: 天非此火, 不能生物; 人非此火, 不能有生。夫《內經》以心胞絡爲臟, 配合三焦而爲六臟六腑, 總爲十二經也)<sup>5)</sup>

虞搏은 인체의‘腑’에는 ‘창고’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았고, ‘창고’라면 물체를 저장하거나 담는 곳이므로 膽은 ‘中精之府’, 小腸은 ‘受盛之府’, 大腸은 ‘傳道之府’, 膀胱은 ‘津液之府’이듯이 三焦 또한, 결코 무형이 될 수 없고 형체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 보았다. 虞搏은 《醫學正傳》「醫學或問」에서 비교적 명확하게 三焦의 형태, 부위, 기능을 설명하였다. 현대 해부학적 관점에서 본다면 虞搏의 腔子三焦는 인체의 胸腔 腹腔과 거의 완전히 상응하는 개념이다. 즉, 上焦는 橫膈膜 위 쪽의 心和 肺가 위치하고 있는 胸腔을 말하며, 中焦는 곧 橫膈膜 아래 胃, 脾臟, 脾, 肝, 膽, 橫行結腸이 있는 上腹腔을, 下焦는 膀胱, 子宮, 小腸, 上行結腸, 下行結腸, S狀結腸이 위치하고 있는 下腹腔을 말하는 것이다.

張介賓은 《類經 臟象類》에서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三焦를 ‘中瀆之府’, ‘孤之府’라고 한 것은 분명히 하나의 府가 확실하기 때문이다. 대개 장부의 바깥과 인체 내부에서 모든 藏을 감싸고 있는 體腔의 큰 腑로 ‘中瀆’ ‘是孤’라는 이름이 있는 것은 또한 큰 腑의 형태가 있다는 것이니 《難經》에서 이름만 있고 형체가 없다고 말한 것은 정말로 잘못된 것이다.

(三焦者曰中瀆之府, 是孤之府, 分明確有一府, 蓋即藏府之外, 軀體之內, 包羅諸藏, 一腔之大府

2) 윤창열. 三焦有形說에 關한 研究.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2011.24(6), p.142.

3) 虞搏 醫學正傳.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1. p.7.

4) 윤창열. 三焦有形說에 關한 研究.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2011.24(6), p.136.

5) 虞搏 醫學正傳.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1. p.6.

也, 故有中瀆是孤之名, 而亦有大腑之形, 難經謂其有名無形, 誠一失也)

이것은 虞搏이 三焦를 腔이 있고, 腔내부에 六臟五腑를 포함하고 있다라고 주장한 것과 같은 관점이므로, 虞搏의 주장을 張介賓이 받아들였다고 볼 수 있다.

### 3) 兩腎皆爲命門說

命門이란 말은 비록 《內經》에 제일 먼저 나오긴 하나 穴位 또는 目(눈)을 지칭하는 용어로 後代의 命門學說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 《難經》에서 右腎을 命門으로 기술한 이후 수많은 醫家들에 의해서 그 位置와 本質, 機能, 作用 및 養生治病에 대해서 많은 研究가 이루어졌고, 이중 특히 位置와 機能 등이 다양하게 解釋되어 많은 혼란이 야기되어 왔다.<sup>6)</sup>

즉, 《難經·三十九難》에서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

腎은 두 개인데, 왼쪽에 있는 것이 腎이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命門이다. 命門은 精神이 머무르는 곳이며, 남자는 명문으로써 精을 저장하고 여자는 胞를 담당하게 하니 命門의 氣와 腎은 서로 통한다.

(腎有兩藏也. 其左爲腎, 右爲命門. 命門者, 精神之所舍也, 男子以藏精, 女子以繫胞, 其氣與腎通)

이후로 여러 의가들은 이러한 《難經》의 관점을 지지하였다.

특히, 劉完素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며, 命門과 相火를 최초로 연결시키는 주장을 펴 이후 命門學說이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왼쪽에 있는 腎은 水에 속하고 남자는 精을 저장하고 여자는 胞를 담당한다. 오른쪽에 있는 腎은 火에 속하고 이 火는 삼초를 돌아다니는데, 사람의 흥하고 쇠함의 이치가 여기에서 유래하

로 七節 양방 가운데에 小心이 있으니 이를 命門相火라고 한다.

(故左腎屬水, 男子以藏精 女子以繫胞, 右腎屬火, 遊行三焦, 興衰之道由於此故. 七節之傍, 中有小心, 是言命門相火也)

《難經》 이후로 漢, 晉, 隨, 唐代 등의 醫學著作 중에는 거의 논술한 것이 없고, 宋, 金, 元 시기의 많은 醫家들이 논술한 바가 있긴 하지만 깊이 들어가지는 못하였으며 이후 明·淸대에 이르러 여러 醫家들이 命門에 대한 깊은 연구와 논쟁을 전개시켰는데<sup>7)</sup>, 虞搏의 주장도 醫學界에서 큰 주목을 받았다. 命門 학설은 크게 ‘右腎命門說’ ‘包括命門說’, ‘腎間命門說’, ‘動氣命門說’ 등이 있는데, 虞搏은 《醫學正傳》 「醫學或問」 第14條에서 다음과 같이 兩腎皆爲命門說을 주장하였다.

腎은 陰에 속하여 본디 靜을 주하나 靜하면 陽이 그 안에 潛藏하게 되고, 陽이 潛藏한다면 순전히 靜만 하고 生氣의 움직임이 없겠는가. 《內經》에 “腎者主水, 受五臟六府之精而藏之” 라고 한 것은 陽이 陰으로 돌아가서 潛藏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또한, “腎者, 作強之官, 伎巧出焉.” 한다는 말은 陽이 陰에서 나와서 化生한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腎을 하나의 臟으로서 五行에 배속시켜 말한다면 水에 속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腎臟은 2개가 있음으로써 2개의 象이 있다고 말한다면 또한 左右로써 陰陽剛柔로 나누어 五臟의 근원이 된다고 명할 수 있을 것이다. 左는 陰, 右는 陽이요, 陰은 水, 陽은 火이며, 水는 血, 火는 氣인데, 이렇게 보면 左腎의 陰水는 肝木을 생하고 肝木은 心火를 생하며, 右腎의 陽火는 脾土를 생하고, 脾土는 肺金을 생하니 4개의 臟과 腎은 마치 가지가 뿌리에서 뻗어나오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다.

(腎屬陰而本主乎靜, 靜則陽孕於其中 陽既孕矣, 其能純乎靜而無生氣之動歟. 若經所謂腎屬

6) 윤창열 편저. 醫易學. 대전. 주민출판사. 2007. p.445.

7) 羅昌洙 外19인 教授共編著. 한의학총강. 서울. 의성당. 2010. p.263.

水, 受五臟六腑之精而藏之, 是陽歸之陰而成孕者也。 又謂腎爲作強之官, 伎巧出焉, 陽出之陰而化生者也。 是故腎爲一臟配五行而言者, 則屬之水矣。 以其兩腎之形有二象而言者, 亦得以左右分陰陽剛柔而命爲五臟之根元也。 以左爲陰, 右爲陽, 陰爲水, 陽爲火, 水爲血, 火爲氣, 於是左腎之陰水生肝木, 肝木生心火, 右腎之陽火生脾土, 脾土生肺金, 其四臟之於腎, 猶枝葉之出於根也)<sup>8)</sup>

두 개의 腎은 진실로 眞元의 근본이며 性命을 주관하는 것이니 비록 水臟이라 할지라도 실제로는 相火가 그 속에 자리잡고 있어서 물 속의 龍火가 그 動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과 같다. 내 생각으로는 두 개의 腎을 모두 命門으로 불러야 마땅하니, 命門穴은 정확히 문에 있는 문설주를 본뜻 것으로 열고 닫음을 주관하는 것을 빗대었다. 靜하여 닫혀있음은 一陰의 眞水를 함양하고 있음이요 動하여 열림은 龍雷의 相火가 북돋아 집이 아니겠는가. 무릇 水라는 것은 일정하고 火는 변화하는 것이다. 만약에 右腎만을 相火라고 지칭하여 三焦와 배합한다면 오히려 이론을 세운 것이 정교하지 못할까 걱정되니 내 알지는 못하겠지만 지식을 가진 자들은 어떻다고 여기는가?

(夫兩腎固爲眞元之根本, 性命之所關, 雖爲水臟, 而實有相火寓乎其中, 象水中之龍火, 因其動而發也。 愚意當以兩腎總號爲命門, 其命門穴正象門中之根, 司開闔之象也。 惟其靜而闔, 涵養乎一陰之眞水; 動而開, 鼓舞乎龍雷之相火。 夫水者常也, 火者變也。 若獨指乎右腎爲相火, 以爲三焦之配, 尚恐立言之未精也, 未知識者以爲何如?)

즉, 虞搏의 ‘兩腎皆爲命門說’의 관점으로 보면, 命門은 兩腎 기능의 집중체로 兩腎 모두를 命門으로 불러야 한다는 것이다. 즉, 命門은 결코 兩腎 외부에 있는 별개의 독립 장부가 될 수 없고 右腎만 단독으로 命門이라고 하거나 相火라고 지칭할 수 없다는 것이다. 命門은 단지 兩腎 기능의 陰陽, 水火, 氣血, 動靜, 開闔, 常變 등과 같은 것들처럼 대립되면서도 전체적인 개념으로 보

는 관점으로 이해하여야 그 본질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후 張介賓은 <類經附翼. 求正錄. 三焦包絡命門辨>에서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腎이 두 개인 것은 坎괘의 외부인 두 개의 陰爻에 해당하는 것이요, 명문이 하나인 것은 坎괘의 내부인 하나의 陽爻에 해당하는 것이다. 하나로써 둘을 총괄하고 두 개로써 하나를 싸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명문은 두 개의 腎을 총괄하므로 두 개의 腎은 모두 命門에 속한다

(腎兩者, 坎外之偶也; 命門一者, 坎中之奇也。 一以統兩, 兩以包一。 是命門總主乎兩腎, 而兩腎皆屬於命門)

즉, 水의 속성을 지니고 있는 臟腑인 腎을 坎卦(☵)의 象으로 설명하였는데, 외부에 있는 2개의 爻는 陰爻로써 陰은 有形的이며 質體的인 뜻이 있으므로<sup>9)</sup>, 실제적인 臟器로써의 腎臟 자체를 의미한다. 坎卦에서 中爻인 陽爻가 水의 流動性을 상징하듯이, 命門 또한 두 개의 腎臟 내부에서 相火의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命門은 兩腎 기능의 집중체로 兩腎 모두를 命門으로 불러야 한다는 虞搏의 ‘兩腎皆爲命門說’과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

#### 4) 亢害承制論에 관한 闡發

자연계에서 萬物이 생존함에 있어서 生化와 制約의 相反된 현상이 두루 존재함으로써 상호간의 상대평형을 유지하고 있다. 만약 어느 한 방면의 발전이 過亢하거나 不及하게 되면 이런 평형은 파괴되어 變亂이 발생하게 된다. 人體의 생명과정에서도 마찬가지로 또한 같은 종류의 이러한 상태가 나타난다. <內經>에서는 이러한 종류의 현상을 “亢害承制”라고 稱하였다.<sup>10)</sup>

<素問·六微旨大論>에 “亢則害, 承乃制. 制生則化, 外列盛衰; 害則敗亂, 生化大病”의 문장을 王水

9) 한규성, 역학원리강화, 예문지, 2005, p.168.

10) 裘沛然 主編, 中醫歷代名家學說,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4, p.70.

8) 虞搏 醫學正傳.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1. p.10.

이 註解한 이후로 역대 많은 醫家들의 주장이 있었으나, 虞搏은 《醫學正傳》 「醫學或問」에서 王安道の 說을 바탕으로 그만의 독특한 주장을 더하여 尙害承制論을 정밀하게 闡發하였다.

먼저 虞搏이 받아들인 王安道の 說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尙則害 承乃制’ 두 구절은 그 지나침을 억누른다는 말이고, ‘制生則化’부터 ‘生化大病’까지 네 구절은 ‘有制之常’과 ‘無制之變’을 말하는 것이다. ‘承’은 따른다는 의미와 유사한데, ‘髓’라 하지 않고 ‘承’이라 한 것은 아래에 있기에 그렇게 말한 것인즉 위로 만드는 형상이 있어 ‘承’이라고 한 것이다. 비록 ‘承’이라고 하였으나 방지한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다. ‘尙’은 지나침이 극에 다다랐다는 것이요, ‘害’는 만물에 해를 입힌다는 뜻이며, ‘制’는 克하여 이긴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尙’하지 않으면 ‘承’하는 것은 따르기만 할 뿐이므로 드러나지 않고, ‘尙’하면 ‘承’하는 것이 그것을 克하여 平氣로 만들어야 하므로, 드러나는 것이다.

(尙則害 承乃制二句 言抑其過也 制生則化至生化大病四句 言有制之常 與無制之變也。承、猶隨也 不曰髓而曰承者 以下言之 則有上奉之象 故曰承 雖謂之承 而有防之之義存焉。尙者, 過極也, 害者, 害物也, 制者, 剋勝之也。然所承也, 其不尙, 則隨之而已, 故雖承而不見。既尙, 則剋勝以平之, 承斯見矣)

또한 王安道는 《素問·六微旨大論》 “制生則化, 外列盛衰; 害則敗亂, 生化大病”에서 “制生則化”를 “制則生化”로 고쳐야 한다고 주장하였는데, 이것은 ‘有制之常’과 ‘無制之變’의 상황으로 나누어 각각 “制生則化, 外列盛衰”와 “害則敗亂, 生化大病”으로 설명해야 한다고 하였다. 즉, 制하는 바가 있으면 六氣가 尙에 이르지 않아 萬物이 生化하며 이렇게 되면 六氣의 主治함이 번갈아 盛衰됨을 분명히 알 수 있으므로 ‘外列盛衰’라고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虞搏은 ‘承’의 해석에 있어 王安道와 뜻을 같

이 했는데, 《醫學正傳》 「醫學或問」 第 3條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王安道는 ‘承’은 따르는 것이다라 하고, 앞의 것을 방지한다는 뜻이 있다고 하였는데, 아래에서 위에 있는 것을 만드는 것이므로 ‘承’이라고 하였다. 오행의 도는 항성해지지 않으면 그것을 따를 뿐이요 만일 항성해지면, 일어나 극하여 그것을 누르게 된다.

(王氏曰承猶隨也, 而又有妨之之義, 以下奉上故曰承。其五行之道, 不尙則隨之而已, 一有所尙, 則起而克勝之也)<sup>11)</sup>

다만, 虞搏은 “尙則害”에서 害를 받는 것이 뒤 따르는 것의 元氣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制는 기운의 태과를 억제한다는 것이고 害는 계승하는 것의 원기를 해한다는 말이다. 이른바 원기는 통틀어서 말하면 一元이요, 나누어 말하자면 六元이니, 一元은 天이 水를 생하고, 水生木, 木生火, 火生土, 土生金, 해서 다시 金生水로 순환하는 것이 끝없이 쉬지 않고 계속되는 것이다. 六元은 水는 木이 化하는 근원이요, 木은 火가 化하는 근원이요, 火는 土가 化하는 근원이요 土는 金이 化하는 근원이요 金은 水가 化하는 근원이니 또한 化하는 것이 무궁하다. 예를 들어, 火가 항성하지 않는다면 계승하는 水가 火를 따를 뿐이지만 항성함이 극에 다다르면 水가 일어나 火를 잠잠하게 하니, 이것은 金元의 기운이 해를 입을 것을 우려하여 자식이 부모를 구하러 오는 뜻이 있는 것이다.

(制者, 制其氣之太過也; 害者, 害承者之元氣也。夫所謂元氣者, 總而言之, 謂之一元; 分而言之, 謂之六元。一元者, 天一生水, 水生木, 木生火, 火生土, 土生金, 金復生水, 循環無端, 生生不息。六元者, 水爲木之化元, 木爲火之化元, 火爲土之化元, 土爲金之化元, 金爲水之化元, 亦運化而無窮也。假如火不尙, 則所承之水, 隨之而已; 一有尙極, 則其水起以平之, 蓋恐害吾金元之氣, 子來救母之意也)<sup>12)</sup>

11) 虞搏 醫學正傳.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1. p.3.



즉, 虞搏은 王安道와는 다르게 元氣의 개념과 ‘子來救母’의 원리를 도입하여 이를 설명하였다.

制則生化는 억제함이 있으면 정상적으로 유지됨을 말하는 것으로 만약 항성하는 것을 억제하면 생성과 변화는 쉬지 않으니 어찌 그것에 해가 있을 것인가. 外列盛衰는 계승하는 것의 기운이 쇠하여 항성한 것이 극히 성해지는 것으로 억제하는 것이 미진한 것이니 천지에서는 육음이 되고 사람의 몸에서는 여섯가지 질병이 되는 것이다. 害則敗亂은 억제하는 것이 없어서 변고가 나타나는 것이니 계승하는 것이 심하게 쇠하여 기가 없기 때문에, 항성한 것의 세력이 중횡으로 치성하여 막을 수 없는 것이니 천지에서는 자연계의 기후질서가 파괴되고 사람 몸에서는 진짜로 병이 들어 죽게 되는 것이다.

(制則生化者, 言有制之常, 如亢則制, 而生化不息, 何害之有. 外列盛衰者, 言所承者力衰, 而所亢者極盛, 制之不盡耳, 在天地則爲六淫, 在人身則爲六疾. 害則敗亂者, 言無制之變也, 所承者衰甚而無氣, 故所亢者其勢縱橫而不可遏也, 在天地則大塊絕滅, 在人身則病眞而死矣)<sup>12)</sup>

虞搏은 王安道の 說을 따라서 “制生則化”를 ‘制則生化’로 고쳐 설명하였으며 ‘外列盛衰’의 설명에 대해서는 王安道와는 달리 承制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이러한 ‘外列盛衰’의 단계에서 더 나쁜 상황으로 진행된 것이 ‘害則敗亂’으로 이렇게 되면 사람이 큰 병이 들어 죽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 5)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사고

虞搏은 《醫學正傳》 「醫學或問」에서 각종 邪術을 비판하고, 합리적인 의학을 추구하였다. 이러한 내용은 「醫學或問」중에서 여러 차례 나오는데, 그 중에서 몇 개 만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禁咒科는 《素問》의 祝由科로 용수거사에 의해 세워졌는데, 감정을 옮겨 기를 변화시키는(이정변기) 기술이다. 작은 병은 고칠 수 있는데, 혹은 남녀가 신을 모시는 사당에 들어가 놀라고 미혹되어 병이 생기거나 산림계곡의 나쁜 기운에 감촉되면 그 증상이 마치 취한 것 같고 바보가 된 것 같고 샷된 귀신이 붙은 것 같은데 이것은 모두 심신이 당황하고 미혹되어 나타나는 증상으로 주문을 읽어 미혹된 것을 풀고, 정신을 안정시킬 수 있을 뿐이다. 옛날에 용수는 주문서를 세상에 낸 것이 지금에 돌아다니며 師巫, 降童, 師婆가 민중을 현혹하고 왓자지껄하게 재산을 취하는 술수가 되었다. 아, 샷된 술법은 오직 샷된 인간들이 사용할 뿐이니 지식이 있는 자들은 사용하지 말지이다.

(禁咒科者, 即《素問》祝由科也, 立教於龍樹居士, 爲移精變氣之術耳. 可治小病, 或男女入神廟 驚惑成病, 或山林溪谷衝斥惡氣, 其証如醉如癡, 如爲邪鬼所附, 一切心神惶惑之証, 可以借咒語以解惑安神而已. 古有龍樹咒法之書行於世, 今流而爲師巫, 爲降童, 爲師婆, 而爲扇惑民衆, 哄嚇取財之術. 噫 邪術惟邪人用之, 知理者勿用也)<sup>14)</sup>

虞搏은 위와 같이 비판하면서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요즘 시대 사람들은 의사를 불신하고 무당을 믿어 억울하게 죽으니 모두 바른 수명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요, 돌담 아래(매우 위험한 곳)에 처하거나 형벌을 받아 죽는 사람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今時人有不信醫而信巫枉死者, 皆不得盡乎正命而與岩牆桎梏死者何異焉)<sup>15)</sup>

즉, 虞搏은 醫學의 理致로써 邪術을 비판하였고, 迷信을 부정하였다. 鬼胎에 대한 그의 설명을 보면 더 명확하게 그의 생각을 알 수 있다.

남녀가 성적으로 음란하여 허해지면 간신의 상

12) 虞搏 醫學正傳.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1. p.3.

13) 虞搏 醫學正傳.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1. p.3.

14) 虞搏 醫學正傳.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1. p.22.

15) 虞搏 醫學正傳.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1. p.23.

화가 시도 때도 없이 일어나므로 허로운 상태의 사람은 꿈에서 귀신과 성교하는 꿈을 많이 꾸게 된다. 이른바 鬼胎라는 것은 ‘가짜 태’로, 실제로 귀신과 성교하여 태아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고방에 ‘생각이 무궁한데, 뜻을 이루지 못하면 백음 백탁이 자궁으로 흘러 들어가 맺혀서 귀태가 된다’고 하였으니 본래 부인 자신의 혈액과 음정이 맺혀서 덩어리를 이루어 가슴과 복부가 그득하게 되고 마치 태아를 잉태한 것처럼 되니 가짜 태가 아니면 무엇이겠는가.

(凡男女之性淫而虛者, 則肝腎之相火無時不起, 故勞怯之人多夢與鬼交。夫所謂鬼胎者, 僞胎也。非實有鬼神交接而成胎也。古方有云: 思想無窮, 所願不遂, 爲白淫白濁, 流於子宮, 結爲鬼胎, 乃本婦自己之血液淫精, 聚結成塊, 而胸腹脹滿, 儼若胎孕耳, 非僞胎而何)<sup>16)</sup>

또한, 당시 민간에서는 소아의 氣喘이 土神을 범해서 발생한다고 생각하였다. 즉, 방앗간을 짓거나, 부엌을 만들거나 우물의 흙을 치우거나 메울 때, 도랑을 통하게 하는 등의 일을 할 때 소아의 기천증이 생기면 술사가 토를 퇴치해야 한다는 말을 믿고, 부적을 써서 움직인 흙에 붙인다거나 주문을 외운 물에 부적을 태워 섞어 먹는다거나 집의 방위를 살피며 土垆이 어느 방향에 머물고 태양이 어느 곳에 내리쬐는지를 말하며 태양이 비춘 흙을 아이에게 타서 마시도록 하기도 하였다.

虞搏은 이러한 민간 풍속에 대하여 《醫學正傳》「醫學或問」第 32條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소아가 천증이 생긴 것은 많은 경우 풍한이 밖에서 구속하여 주리가 막히고 폐기가 선통하지 못하여 병이 생기는 것이다. 치법은 전씨사백산이나 삼요탕 등의 방제를 사용하여 주리를 열어 통하게 하고, 폐기를 펴게 해야 천증이 사그라 들고 안정이 된다. 구토나 설사 후 중기가 부족하면 단기와 천증이 생기는데, 치료에는 전씨익황산, 동원의 보중익기탕을 사용하거나 복룡간을 끓여 식혀서 마시게 하면 천증이 안정되는 경우가 있다.

(夫小兒發喘, 多因風寒外束, 腠理壅遏, 而肺氣不得宣通而爲病耳。治法當用錢氏瀉白散或三拗湯等劑, 使腠理開通, 肺氣舒暢而喘息定矣。或因吐瀉之後而中氣不足, 亦使短氣而喘。治用錢氏益黃散、東垣補中益氣湯, 或用伏龍肝, 湯泡放溫飲之, 其喘立定者有之)<sup>17)</sup>

의사는 스스로 마땅히 방법들을 검사하고 법칙을 생각하며 조치하여 보잘 것 없는 무리들의 속됨으로 미혹하는 것을 듣지 말아야 할 것이다.

(醫者自宜檢方按法調治, 毋聽末流之俗以致惑焉)

이처럼 虞搏이 《醫學正傳》의 「醫學或問」에서 언급하고 있는 내용들을 볼 때, 그는 미신을 멀리하고 합리적인 의학의 이치를 추구하였음을 엿볼 수 있다.

### Ⅲ. 결 론

虞搏의 《醫學正傳》은 《東醫寶鑑》에서 중요하게 인용하고 있는 서적 중 하나로 《醫學正傳》內的 「醫學或問」 51條에서는 醫學的 論爭에 대한 虞搏의 독창적인 주장을 엿볼 수 있으며, 이러한 내용들은 후세 의가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다. 「醫學或問」의 51條 내용을 고찰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虞搏은 《醫學正傳》의 서두에서 「醫學或問」 51條를 서술하였는데, 과거의 내용을 답습한 내용이 아니고 자신의 깨달은 내용들을 기술하여 후학들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다.

2) 虞搏은 《難經》이후 많은 의가들이 추종하던 三焦無形說을 따르지 않고, 三焦의 형체가 脂膜이고 體腔내에 있으며 六臟五腑를 바깥 쪽에서 둘러싸고 있다고 하는 腔子三焦說을 주장하였다. 三焦가 有腔한 장부라는 이러한 주장은 張介賓에게 영향을 주었다.

3) 虞搏은 兩腎皆爲命門說을 주장하였다. 즉,

16) 虞搏 醫學正傳.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1. p.19.

17) 虞搏 醫學正傳.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1. p.18.

命門은 腎臟 외부에 있는 별개의 독립 장부가 아니고, 右腎만 단독으로 命門이라고 할 수도 없으며, 단지 兩腎 기능 중에서 陰陽, 水火, 氣血, 動靜, 開闔, 常變 등과 같은 것들처럼 대립되면서도 전체적인 개념으로 보는 관점으로 이해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4) 虞搏은 尙害承制論에서 王安道の 說을 수용하였고, 元氣의 개념과 ‘子來救母’의 원리를 도입하여 이를 보충하였다. 즉, “尙則害, 承乃制”에서 예를 들어 火가 항성할 때 水가 制하는 것은 水의 母인 金의 元氣를 보호하려는 것으로 자식이 부모를 구하러 오는 뜻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5) 虞搏은 각종 邪術을 비판하고, 합리적인 의학을 추구하였다. 즉, 禁咒科의 移精變氣術의 효용을 인정하되, 그 쓰임이 제한적임을 밝혀 사된 술법에 미혹됨을 경계하였다. 또한, 당시 민간에서 鬼胎가 사람이 鬼神과 性交하여 생긴다고 믿거나, 소아의 氣喘이 土神을 범해서 발생한다고 믿는 것을 의학적인 이치로 설명하며 비판하였으며 이러한 迷信을 믿고 醫師를 불신하는 풍토가 제 수명을 다하지 못하게 한다고 하면서 특히 醫師들은 이러한 迷信을 멀리하고 올바른 의학적 방법과 원리로 치료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참고문헌

1. 裘沛然 主編, 中醫歷代名家學說,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4.
2. 羅昌洙 外19인 教授共編著. 韓의학총강. 서울. 의성당. 2010.
3. 虞搏 醫學正傳.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4. 윤창열, 김용진 편저. 難經研究集成. 대전, 주민출판사. 2002.
5. 윤창열. 三焦有形說에 關한 研究. 대한한의 학원전학회지.2011.24(6).
6. 윤창열 편저. 醫易學. 대전. 주민출판사. 2007.
7. 張介賓, 類經, 서울, 成輔社, 1982.

8. 張介賓, 類經圖翼, 서울, 成輔社, 1982.
9. 전국한의과대학 원전학교실 編. 懸吐校勘 朝本黃帝內經素問. 서울. 集文堂. 2013.
10. 한규성, 역학원리강화, 예문지, 2005.